

“할인없는 투자 못해”… 몸값 낮춰 IPO 막차타는 바이오株

올해 기업공개(IPO) 막차를 타는 바이오주들이 혹독한 증시 한파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업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투자 호한기가 계속되면서 언제 새로운 기회가 올지 가능하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특히 기존 투자자들의 엑시트 압박과 기업의 생존을 위해 공모가를 대폭 낮추면서도 증시 입성을 강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몸값 낮춰서라도 IPO 강행

31일 업계에 따르면 큐로셀은 지난 30일 장 마감 이후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최종 공모가를 2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제시한 희망 공모가 범위 2만9800~3만3500원의 하단보다 33% 내린 수준이다.

큐로셀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CAR-T 개발 전문기업으로 올 하반기 바이오 IPO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종목이다. 160만 주 전량을 신주로 발행, 공모가 상단 기준 536억원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실제 공모자금은 40%가 줄어든 32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바이오기업들이 유독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상장 바이오 기업으로서 올해 가장 큰 규모의 공모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국내 최초로 CAR-T 치료

큐로셀 공모가, 희망가비 33% ↓
예상 536억에서 40% 줄어 320억
상반기 바이오·의료 투자액 3665억
전년 6758억 대비 절반 수준 줄어
“투자자 탈출 위해 공모가 낮춰
살아남기에 급급… 안타까운 결과”



제 개발을 시작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큐로셀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상장 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항암면역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바이오 기업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희망 공모가 밴드 8200~9400원을 제시했지만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치며 하단보다도 한참 낮은 공모가 7000원으로 상장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현재 4315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8월 상장한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역시 희망 공모가를 1만3000~1만6000원으로 제시했으나 하단인 1만3000원으로 상장했으며 파로스아이바이오역

시 희망 공모가(1만4000~1만8000원)의 하단에서 공모가격이 결정됐다.

◆ 공모가 할인 요구 높아져

기업들이 이렇게 몸값을 낮추면서도 증시 입성을 강행하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다. 특히 시장에 발 묶인 기존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위해 공모가 할인 압박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R&D)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오랜 시간 투자해야 하고, 이를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특징이 있다”며 “기술수출로 인한 현금흐름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회수가 불확실한 바이오 투자를 꺼리게 되고 바이오 기업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VC 투자는

크게 감소한 상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바이오·의료 업종 투자금액은 36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58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상반기(8066억)와 비교하면 55% 가량 줄어든 규모다.

VC업계 관계자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 투자자들의 탈출을 위해 공모가를 낮게 써낼 수 밖에 없다”며 “데스밸리를 넘고 살아남는데 급급한 기업의 입장에서 기존보다 한참 낮은 밸류를 감안하더라도 IPO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맞물린 안타까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일단 공모자금으로 급한 불을 끈 이후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편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상장을 강행한 한 바이오 기업 대표는 “내년에 증시 상황이 나아질지 알 수 없고 투자 받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계획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모 자금을 기댈 수 밖에 없었다”며 “기술에 자신이 있는 기업의 경우엔 밸류를 낮춰서라도 일단 상장을 강행하고, 시장이 결국 기업의 가치를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예탁결제원

의무보유등록 상장주식 48곳 3.5억株 내달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두산로보틱스 등의 의무보유등록 상장주식 총 48개사 3억5188만주가 다음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6개사 1억2329만주이며, 코스닥시장은 42개사 2억2859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치피오(69.61%),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24%),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7.14%)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 트리미티드(7200만주),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352만주),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740만주)다.

/원관희 기자

영풍제지 쇼크에… 증권가 ‘리스크 관리’ 발등에 불

연일 하한가… 10일만에 83% ↓
키움증권, 증거금률 40% 방치에
미수금 4939억, 상반기 순익 초과

영풍제지가 거래 재개 이후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키움증권의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 키움증권이 낮은 증거금률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은 일제히 증거금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영풍제지가 거래가 재개됐던 지난 26일부터 4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전장보다 29.93% 떨어진 8170원에 마감하면서 1만원대까지 붕괴됐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의 미수금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주가가 전 거



/키움증권

래일보다 29.96% 가량 급락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26일 거래가 재개됐지만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이었던 17일 종가보다 83.11% 떨어졌다. 이에 따라 타 증권사보다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낮게 설정했던 키움증권의 미수금 손실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키움증권이 공시한 영풍제지 미수금 규모는 4939억원으로 키움증권의 상반기 순이익인 4258억원을 초과한다.

앞서 우도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영풍제지의 거래가 재개된 후 총 4거래일 하한가를 간다면 미수금 손실액은 최대 355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미수금 관련 최대 손실액도 3550억원 수준으로 생각되지만, 고객의 변제에 따라 미수금은 추후 추가적으로 회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4월에 발생한 키움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손실 800억원이 아직 전체 회수가 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미수금 회수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7월까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의 증권사들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설정했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40%로 계속 유지하면서 대량 미수금이 발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빛

투(빛내서 투자)’가 늘면서 증권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언급됐던 만큼 증거금률을 조정하는 추세”였다고 “투자자들의 니즈가 있음에도 투자자들의 위험 관리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 약세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풍제지 사태가 겹치자 증권가들은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4일 삼성증권은 포스코홀딩스, 한미반도체,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18개의 종목의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했으며,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도 각각 19개, 85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후였던 26일 기준 신용거래용자잔고는 17조4791억원으로, 지난 9월 20조원을 도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국투자증권

4억 달러 외화채권 발행

한국투자증권은 4억 달러(약 5400억원) 규모의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예정액보다 1억달러를 증액 발행하며 최근 최근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높은 수준의 조달 경쟁력을 드러냈다.

한국투자증권이 이번엔 발행한 외화채권은 3년 만기 구조로 미국 3년물 국제 금리에 235bp(1bp=0.01%포인트) 가산 스프레드를 더한 금리 조건으로 확정됐다. 최초 발행 예정액은 3억 달러였다. 그러나 전일 진행된 수요예측 과정에서 170여개 기관으로부터 26억 5000만달러에 달하는 유효주문이 몰리며 최종 4억달러로 증액 발행하게 됐다. 금리도 최초 가이던스 대비 25bp 가량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흥행은 수요예측에 앞서 적극적인 로드쇼를 통해 다각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와 회사의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끌어낸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 50여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면로드쇼를 진행했다. 이번 외화채권 발행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HSBC, 나틱시스은행(NATIXIS), KIS 아시아가 주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바닥 찍었나… 서학개미, 테슬라株 2억 달러 ‘줍줍’

해외주식 Click

테슬라

6개월 만에 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
수익 추종 ETF 3427만 달러 사들여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테슬라로 쏠리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3분기 부진한 실적과 전기차 시장의 정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바닥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0월 24~30일)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1억9824만달러 어치를 사들였다.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1.5배 따르는 디렉시온 테일리 테슬라 불 1.5배(TSLI)에도 3427만달러가 몰렸다.

서학개미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테슬라를 순매도해 왔으나 10월 들어 순매수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월간 기준으로 약 6개월 만에 서학개미 순매수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같이 테슬라가 다시 서학개미들의 관심을 끈 것은 주가 하락 때문이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18일 240달러대로 하락하더니 19일 220달러, 20일 210달러대로 급락세를 이어가다가 26일 200달러 아래로 추락했다. 이날에는 4.8% 급

락한 197.36달러로 마감, 지난 5월 2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테슬라의 주가 하락 배경에는 3분기 ‘어닝쇼크’가 있다.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은 233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인 241억달러에 못 미쳤다. 게다가 순이익은 18억5000만달러로 작년보다 44% 급감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부진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가격 인하 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원관희 기자 wkh@